

# 네 컷 만화로 5·18 고발... '나대로 선생' 이흥우 화백 별세

## 광주일보 '미나리 여자' 등 사회풍자 만화 다수 연재

1980년 5월20일 광주일보(옛 전남일보)에 글자 한 자 없는 이색적인 네 컷 만화가 실렸다. 마지막 칸에 주인공 '미나리 여자'가 소주를 앞에 놓고 담배를 피워 문 채 울고 있고, 옆에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전남일보 '미나리 여자', 동아일보 '나대로 선생' 등 네 컷 연재만화로 현실을 풍자한 시사만화가 이흥우(李興雨) 화백이 23일 오후 5시10분께 세상을 떠났다. 유족이 24일 전했다. 향년 7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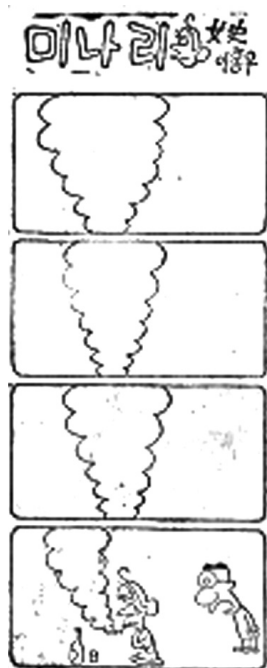
1949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개성중 1학년 때 부산 '국제신문'에 투고한 독자만화가 당선되면서 신문 지면에 이름을 올리게 시작했다. 시사만화가의 꿈을 안고 서울로 유학, 서라벌고에 다닐 때부터 여러 신문과 학생 잡지에 만화를 실었고, 1967년 서라벌예술대 2학년 때 대전 중도일보에 '두루미'를 그리기 시작해 1973년 이 신문이 폐간될 때까지 연재했다. 1973년 전남일보로 옮겨 '미나리 여자'를 그렸다.

고인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일보서

울지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2019년 5월 '신동아'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당시 최승호 전남일보 편집국장으로부터 "지금 광주에서는 계엄군의 만행을 기록한 모든 기사가 휴지통에 들어가고 있다. '미나리 여자'를 통해 은유적으로 이 상황을 전달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1980년 5월20일자 네 컷 만화를 그렸다고 했다.

고인은 이후 1980년 11월12일부터 김성환(1932~2019) 화백의 '고바우 영감'의 바통을 이어 받아 동아일보에 '나대로 선생'을 연재했지만 해마다 5월이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만화를 실었다.

'나대로 선생'은 2007년 12월 26일 제8568호로 마무리될 때까지 27년간 연재되며 1991년 당시 6공 정부를 6신('외교 굵신, 경제 망신, 치안 불신, 정책 등신, 납치기 귀신, 국민 배신')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1986년 당시 보도지침상 보도가 금지됐던 국회 국방위원회 회식 폭력 사건을 "맛고 나니 눈앞



5·18을 다룬 1980년 5월 20일 광주일보 네컷 만화.

에 별이 번쩍번쩍하더군"이라고 묘사한 만화를 실었다가 고인이 보안사에 끌려가기도 했다.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삼팔선'(38세도 선선히 사표를 받아준다) 등 유행어도 남겼다.

상명대 문화예술대학원 만화영상학과 교수·석좌교수, 한국시사만화가회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제1회고바우만화상(2001), 동아일보 '동아대상'(2007), 제16회 대한인문인상 공모상(2007)을 받았다.

/연합뉴스

# 장서우 전남농업기술원 연구사, 농업기술대상 수상

장서우(사진)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연구사가 2022년 농촌진흥사업 농업기술대상을 수상했다.

농업기술대상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농업분야 최고의 상으로 농업과학기술 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 국민의 생활 여건 향상 등에 기여한 연구사에게 주는 영예로운 상이다.

장 연구사는 '기능성 상추 흑하랑 개발 및 수면건강제품 산업화' 연구실적으로 농업현장(개인분야)에 응모해 지방기관 최초 수상자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상은 전통 토종종자의 기능 성분은 활용한 지적재산권 확보와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 연구 결과인 기능성 품종의 개발·보급, 프리미엄급 상추로 유통, 전문생산단지 육성, 수면건강제품으로 가공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이와 함께 수출을 통



해 글로벌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18년간 토종 업체류 기능성 품종육성 연구에 열정을 발휘해속 면효과에 탁월한 흑하랑 상추를 비롯해 청하랑, 청하랑2 상추를 육성하고 기업체 수요와 생산능력의 여건에 맞는 협업을 통해 입상추뿐만 아니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성 원료화까지 추진하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

특히 2017년부터 기능성 상추 '흑하랑'의 가공 산업화에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산업체와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면서 지금의 수면 기능성 제품 산업화에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동강대 박은지씨 건강보험사 자격시험 전국 수석

"학교생활 3년 동안 건강보험 강의를 들었고 관련 분야를 꾸준히 공부한 게 수석합격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병원행정과 건강보험 분야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동강대학교 보건행정과 박은지(3년·사진) 씨가 건강보험사 자격시험에서 전국 수석으로 합격했다. 건강보험사는 병원 행정인으로 의료보험청구와 관련된 다양한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박씨는 "국민보건의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 보건행정인의 기본 자질을 배우기 위해 보건행정과에 입학했다"며 "건강보험은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해 매 학년 관련 강의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서도 건강보험 관련 공부를 꾸준히 했고 그동안 쌓았던 지식을 점검하고 스펙도 쌓을 겸 건강보험사 자격 시험에 응시했는데 수석합격까지 차지해 너무 행복하다"고 밝혔다.



'수석 합격의 비결을 알려달라'는 쏟아지는 주위의 반응에 특별한 비결이 없어 오히려 속스럽다는 박은지 씨.

박씨는 "소위 '몰아치기'가 아니라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했으 뿐이다"며 "올 학과 교육 과정에 보건의료법규, 건강보험 과목이 있어 시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1학기 때 교수님이 지도해 준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고 9월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씩 모의고사를 풀고 틀린 문제는 오답정리를 하며 이론 공부도 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2월 보건교육사 시험까지 잘 마무리하고 진로를 택하고 싶다"며 "학교 생활동안 쌓은 지식을 현장에서 잘 활용해 병원행정과 건강보험 분야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보건행정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별세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박형선(사진) 해동건설 회장이 24일 새벽 1시 50분께 급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0세.

광주 서중과 광주일고를 졸업한 박 회장은 전남대 민족사 연구회에 가입한 뒤 학생운동에 가담했다. 박 회장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1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고 윤상원과 영혼 결혼식을 올린 고(故) 박기순 열사가 고인의 여동생이며 부인은 윤한봉씨 여동생 윤경자씨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마녀의 게임(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빠뽀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네 한 바퀴(재) 55 안녕 우리말 2022(재)	00 커튼콜(재)	15 헬로키즈 공학교실 30 반짝이는 프리채널3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글로벌 도네이션쇼 W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영화가 좋다(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이웃집 찰스(재)			00 뉴스브리핑
[3]	00 영상앨범 산(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초이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둥실 문계공방 2(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재)	50 통합뉴스룸 ET	10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50 테마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태풍의 신부	05 마녀의 게임 40 MBC 뉴스데스크	45 닥터 365 50 SBS 8 뉴스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커튼콜	00 호적메이트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0 더 라이브		30 PD수첩	00 트롤리
[11]	30 KBS 뉴스라인	00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재)	30 100분토론	1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2]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재)	30 아이 러브 스포츠 55 풀럼 영화가 좋다(재)	55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8: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9:00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07:15 출동! 슈퍼왕스	12:10 다류영화 길 위의 인생	19:30 한국의 들레길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3:00 바닷가 사람들	19:50 극한직업
08:00 동등당 유치원	13:50 EBS 다류프리임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로보가 폴리	14:45 한국의 들레길	<로맨틱 홀리데이, 체코 -달콤한 인생, 모리비아>
08:35 명탐정 피트3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21:30 한국기행
08:5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겨울이어서 더 좋아라 2부 이 겨울, 달콤한 인생>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21:50 EBS 다류프리임
09:20 빅 블루	16:15 페퍼 피그	22:45 건축탐구 - 집
09:35 타타와 쿠마	16:25 명탐정 피트3(재)	
09:40 우리집 유치원	16:40 동등당 유치원(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7일(음 12월 5일 甲寅)

36년생 전방위적이고 다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 48년생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60년생 한눈 팔지 말고 현재 마주 대하고 있는 바에 주목하라. 72년생 평대신 닢이라도 받아 들이는 것이 낫겠다. 84년생 아예 기대하지 않음이 속 편할 것이다. 96년생 본격적으로 주력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44, 97

37년생 폭넓은 시야로 접근할 수 있다. 49년생 모든 것을 보류하고 온통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61년생 유기적 기능을 하면서 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73년생 욕심을 버린다면 큰 손해를 면하게 된다. 85년생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커다란 전진이 보인다. 97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대비가 불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20, 70

38년생 성심을 다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50년생 길질을 이끄는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62년생 사소한 배려를 받더라도 그 효과는 크겠다. 74년생 뻥치고 있으면서도 작각을 일으킬 수 있다. 86년생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한 선견지명이 절실하다. 98년생 알면서도 모순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31, 87

39년생 희망의 징후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기대해도 된다. 51년생 단번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은 형국이다. 63년생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판국에 놓여 있다. 75년생 작은 일에 발목이 잡혀서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87년생 평사에 가져왔던 의문이 풀리리라. 99년생 갈수록 그 의미가 희석되어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50

40년생 진행 방향으로부터 장애 요인이 드러난다. 52년생 복잡다단한 일로 인해서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다. 64년생 노력에 상응하는 성숙한 열매가 맺는 면모이다. 76년생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이익이 있다. 88년생 만만찮은 상대가 나타나서 힘들게 한다. 00년생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가는 공든 탑이 무너진다. 행운의 숫자 : 29, 52

41년생 약간만 활용해도 판이한 결과를 날기에 충분하리라. 53년생 결연한 의지로 분명한 언행을 보여 주어야 할 때다. 65년생 폭발적인 성장 동력이 발생하리라. 77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대단히 훌륭한 결과를 낳겠다. 89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01년생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04, 64

42년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54년생 아깝더라도 미련을 버리는 것이 능률적인 판국으로 이른다. 66년생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라. 78년생 결박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월하다. 90년생 깊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02년생 감금하게 보완하라. 행운의 숫자 : 14, 62

43년생 어떤까지 살펴본 후에 판단할 일이다. 55년생 전혀 판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다. 67년생 작정하여 왔던 바를 확실히 성취하는 시제이다. 79년생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면 궁극적으로 해결되리라. 91년생 다 되어 가던 일이 반복해서 지연되는 입지이다. 03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니 삼기일정하라. 행운의 숫자 : 08, 77

44년생 상대의 모호한 반응으로 답답할 수다. 56년생 파격적인 조치로 인한 이익의 폭이 굉장하다. 68년생 근본적으로 상호 결부되어 있음을 알자. 80년생 현재의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면 훌륭한 결과가 있었다. 92년생 들고 도는 세상의 이치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04년생 순탄하지 않다면 내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1, 71

33년생 애매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확실히 하라. 45년생 상승 거점을 마련하는 전환기에 와 있다. 57년생 치열함과 집요함이 성공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69년생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81년생 결정을 내렸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실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93년생 안배를 잘해 나간다면 성취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01, 85

34년생 보는 이의 마음만 안타깝게 할 것이다. 46년생 흥정을 하거나 교섭을 벌이는 형국이다. 58년생 전가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70년생 강도 높게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남패를 볼 수도 있다. 82년생 오히려 인한 시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 94년생 부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30, 69

35년생 하늘의 도움이 클 것이니 품은 뜻을 펼쳐 볼 수 있는 때이다. 47년생 아무리 사소하게 여겨지더라도 결림물부터 치워라. 59년생 성과 없이 유두무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71년생 역행한다면 재앙을 부르는 원인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나. 83년생 섞여 있으니 잘 살펴야겠다. 95년생 시간 낭비할 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19, 68